

출생아수 8개월째 상승...2만명 넘어

전년대비 3.2% ↑...혼인건수 14.3% 증가

팬데믹 이후 결혼·출산 증가세 이어져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혼인 건수가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2023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어 당분간 출생아 수 증가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4년 7월 7.8% ▲8월 5.9% ▲9월 9.9% ▲10월 13.4% ▲11월 14.3% ▲12월

11.6% ▲2025년 1월 11.6%에 이어 8개월째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월간 합계출산율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5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월 5.1명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명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의 영향으로

2023년부터 혼인 건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또 주출산 연령층에 해당하는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증가한 부분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월 사망 건수는 3만28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1만248명 많아 인구는 자연 감소했다.

결혼은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혼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한 1만9370건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1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혼인건수는 지난 2023년(+1967명) 플러스로 전환한 뒤 2024년(+2만8755명)에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됐다. 월간 기준으로도 202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월 이혼 건수는 73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요 혼인 연령층인 30대 초반의 인구가 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혼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수 지속적인 증가도) 기대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스

여수광양항만공사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를 2년 연속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 평가에는 총 134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는 2021년 ‘우수’ 등급에서 2년 만에 ‘최우수’에 오른 데 이어, 올해도 그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하며 지속적인 상생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특히 여수·광양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확대, 국내·외 판로 개척지원 강화, 상생결제제도 지급액 증가 등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강화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온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사는 동반성장 유공 3년 연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농어촌상생 유공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등 동반성장 분야에서 다양한 대외 성과를 거두며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겸비한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왔다.

/광양=조순익 기자

디오션 워터파크, 내달 3일
실내 워터파크 등 일부 개장

여수 디오션리조트는 호남 최대 물놀이 시설인 디오션 워터파크가 5월3일부터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실내 워터파크를 비롯한 실외 유아풀과 인피니티 풀을 함께 개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실내 워터파크와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은 실외 유아풀, 인피니티 풀은 온수로 운영된다.

워터파크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K-팝 음악에 맞춰 아쿠아로빅을 체험할 수 있는 ‘아쿠아댄스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만들기 체험존’도 별도 운영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풀사이드 바비큐존’은 식재료 및 조리도구를 지참하면 워터파크 내에서 자유롭게 조리 및 취식이 가능하다.

슬라이드나 유수풀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또 5월4~5일 어린이날을 맞아 디오션 호텔 레스토랑에서 어린이날 뷔페가 운영된다.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해 마련된 ‘키즈 & 시푸드 뷔페’에서는 약 60여 종의 메뉴와 함께 외인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디오션 워터파크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실내·외 전 시설을 전면 개장하고,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차 ‘2025 코나’ 출시...“기본 트림 가격 동결”

신규 트림 추가·편의사양 확대 적용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한층 강화한 대표 소형 스포츠실용차(SUV) ‘2025 코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차량은 고객들의 선호 사양을 실속 있게 구성한 신규 ‘H-Pick’ 운영과 트림별 기본 편의사양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H-Pick 트림은 기존 ‘모던 플러스’ 트림을 기반으로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루프랙 등 안전·편의사양을 기본화했다.

현대차는 2025 코나의 기본 트림인 ‘모던’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

다. 이외의 트림은 상품성을 강화했음에

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트림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터치 등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은 도어 트림, 오픈 트레이 등의 내장재를 개선했다. 또한 상위 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일부 패키지 품목을 H-Pick 트림까지 확대 운영한다.

2025 코나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478만원 ▲H-Pick 2559만원 ▲프리미엄 2821만원 ▲인스퍼레이션 3102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09만원 ▲H-Pick 2499만원 ▲프리미엄 2753만원 ▲인스퍼레이션 3034만원이다.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5만원 ▲H-Pick 3046만원 ▲프리미엄 3254만원 ▲인스퍼레이션 351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후 기준이다.

글로벌·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 선정...“세계인이 찾도록”

글로벌 상권 창출 2개·로컬브랜드 창출 6개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로컬 크리에이터 주도의 상권 기획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글로벌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8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상권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중심이 되어 골목상권에 집적공간, 체류공간, 회유공간 등 다양한 공간·콘텐츠를 결합시켜 국내 외 유동인구를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상권 내 앵커스토어를 집중 육성하고 지역주민, 건물주 등 골목상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자율 상권관리모델까지 이어지도록 지자체와 공동 지원한다.

‘글로벌 상권 창출팀’에는 서울 종로구(어반플레이), 대전 중구(영영) 등 2개팀이 선정됐다.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중기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 브랜드화하고, 지역 청년의 창업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로컬브랜드 창출팀’에는 서울 서

초구(무브컬처), 충남 부여군(세간), 전북 김제시(셀레스타), 전남 나주시(나주협동상회), 경북 영덕군(초콜레스), 제주 제주시(일로와) 등이 선정됐다.

중기부가 예비 소상공인 창업·혁신 프로그램 및 교육·컨설팅, 공동브랜딩 및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및 운영, 로컬인프라 구축 등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상권 및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표기업 및 지역 구성원간 자율적인 확산과 연대를 위한 워크숍 등도 수시로 개최하고, 전문 멘토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권형안 기자

“행복한 광주! 안전한 기아!”...노·사·정 합동 안전 결의대회

기아 오토랜드광주, 안전한 사업장 조성 결의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3일 2025년 안전환경 목표 달성과 임직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장, 은용철 기아노조 광주지회장, 이도영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인천보건

공단 광주본부장, 사내 외 협력업체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광주 노사대표를 비롯해 각 협력사 대표들이 안전 결의문을 제창하고 서명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카드 섹션 퍼포먼스에서는 임직원들이 ‘행복한 광주! 안전한 기아!’ 문

구가 적힌 카드를 일제히 펼치며, 안전한 사업장을 위한 결의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공동으로 결의한 결의문에는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선진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등 무재해, 무사고를 위한 실천 항목들이 담겼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각 단위공장, 부서, 그룹 단위로 안전결의대회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승현 기아 오토랜드광주 안전시설실장은 “이번 안전결의대회를 계기로 모든 작업 환경에서 안전 최우선이 되는 문화와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최고치 경신 금값...70만원 넘어설까

순금 한 돈당 68만9000원...연일 최고치 갈아치워

국내 금값이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며 한 돈당 70만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증권가에선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일각에선 금으로 풀린 투자심리가 채권 등으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순금 가격은 한 돈(3.75g)당 68만90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순금 가격은 68만2000원으로 시작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달 전인 3월 22일(53만2000원) 대비 29.5% 오른 액수다.

순금 가격은 지난 17일(65만9000원) 이후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국내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분위기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금리 인하 압박으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스 설에 파월 의장을 최대 실패자로 지목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며 “미국 연방 준비제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미국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셀 아메리카’ 흐름이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선 금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미 중 갈등이 깊어질수록 중국의 미 국제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금 가격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가격은 4분기 355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김운상 iM증권 연구원 역시 “금 가격은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가격이 오하려 하락한 달러 및 미 국제화 달러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 위상은 더욱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AI 잘 이용하는 개인·기업만 생존”

광주상의 경제포럼, KAIST 유희준 교수 초청 강연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희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제277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업체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기술, AI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AI 반도체 기술의 혁신 속에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대응 전략, 지역의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유희준 교수는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AI 모델(알고리즘), 반도체·하드웨어와 AI 응용 서비스라는 세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데 있다”면서 “한국은 AI 모델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으나, 하드웨어와 AI 응용 서비스 분야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이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 더 넓은 기회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아

닌 담발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AI’와 메모리 안에서 연산이 이뤄지는 ‘PIM(Processing-In-Memory)’ 기술이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이라고 전망하고 아직 글로벌 선점 기업이 없는 미래적 시장인 만큼 메모리 강국인 한국이 PIM 반도체 기술과 결합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기존 산업에 결합하는 ‘AIX(AI Transformation)’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AI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이를 잘 이용하는 개인과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각자의 산업과 사업에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AI 중심도시 광주의 역할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광주는 AI 기술 융합과 실증을 위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AIX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오히려 이 분야가 AI 반도체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승준 기자

소비심리 5개월째 ‘비관’...100선 하회

집값 전망은 2달째 ‘오른다’...상승 전망 더 늘어

소비심리가 다섯달째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 수출 악화 우려가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집값 전망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지속에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23일 한국은행 발표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로 전월(93.4)보다 0.4포인트 올랐다. 3월 1.8포인트 하락 후 1개월 만의 반등이다. 다만 지난해 12월 88.2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100선을 하회하고 있다.

소비심리지수는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01.8까지 올랐지만 이후 11월 소폭 하락 후 12월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대 낙폭인 12.5포인트 떨어진다.

구성지수 기여도를 보면 현재생활형은 0.0포인트로 지난해와 같았다. 생활형편전망과 가계수입전

망도 전달과 동일했다. 소비지출전망은 0.4포인트 높아졌다. 현재경기판단은 0.3포인트 낮아진 반면, 향후 경기전망은 0.4포인트 올랐다.

한은 측은 비관적 소비자심리 지속에 대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와 내수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이에 따른 향후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소폭 상승했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달(105)보다 3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은 2월 99로 100선을 하회했지만 3월(105) 다시 100선 위로 올라왔다. 3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적용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 오름세 지속에 영향을 받았다.

금리수준전망CSI(96)는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등이 작용했다.

/뉴스스